

# 월간 Gardening

내 취미는  
가드닝 **03**  
Mar 2015 Vol.23

**Special**  
2015 정원디자인 트렌드

Interview  
정정수 가든디자이너

새로운 정원을 만나다  
<식물원K>

GARDEN portfolio  
남양주 박광천씨 댁

정원수 |  
이른 봄 구근들

(주)한국조경신문



9 772288 235009  
ISSN 2288-2359

정가 5,000원

## 나무의 영혼을 말하다, 데이비드 내쉬(David Nash)



데이비드내쉬(David Nash) © Kew Botanic Gardens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조각가라 부르는 데이비드 내쉬(David Nash).

데이비드 내쉬는 1945년 영국 이셔(Esher) 출생으로 예술과 디자인으로 유명한 킹스턴 대학(Kingston College)을 나와 첼시 예술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그는 야생에서 발견된 살아있는 나무들을 정교한 형태로 조각하는 예술가로 알려져 있다. 야생 상태 그대로의 거친 표면을 활용해 만드는 내쉬의 서정적인 조각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그가 나무를 바라보는 관점과 환경론적 관점이 작업에서 어떤 역할을 갖는지를 이해하

는 것이 핵심이다.

작업 초기부터 그는 기후나 질병에 의해 자연스럽게 쓰러진 나무만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선택한 재료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작품을 제작해왔다.

그의 태도는 나무의 형태를 다루는 예리한 감수성과 나무의 본래 형태에 깃든 자연적 요소들로 정의될 수 있다. 내쉬는 “나무의 수명주기는 인간의 수명주기를 닮았다. 그들은 밤낮으로 성장하고 호흡하며, 계절에 따라 깨어있거나 잠을 잔다. 나무는 자신의 형태를 통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낸다”며 나무라는

원료의 소재를 예찬했다. 그는 나무를 조각하기도 하지만 때론 불에 태워 검게 그을린 후 니스를 바르기도 한다. 그것은 더 이상 탄화되지 않는 나무로 변형시켜 수명의 영속성을 부여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내쉬는 모든 자신의 도구들을 이용해 기온과 기상 에 따른 목재의 균열, 나뭇결의 다양한 밀도 및 수명주기를 표현하는 나이테 등에서 드러나는 시간과 이야기들을 표현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강력한 상징적인 울림을 담고 있다. 그는 조각 기술의 정확한 어휘들을 사용해 친숙한 작업을 만들어 내고 쉽게 분류되지 않는 추상적 형태와 모양을 탐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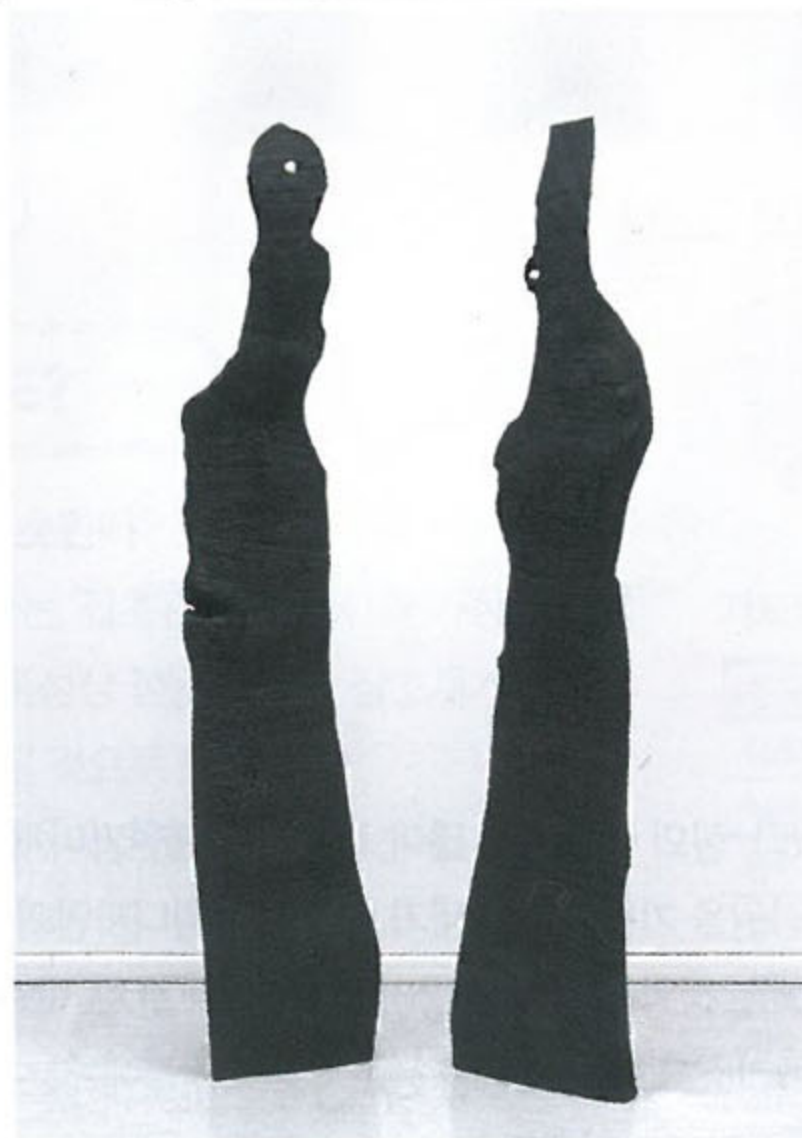
그의 재료에 대한 감수성은 모든 작품들에게 확연히 드러나는데 이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적인 관점과 '배워야만 얻어지는 감각들인 균형, 운동, 진리와 시간에 대한 감각'이라고 묘사한다.

그는 2012년 영국 큐가든에 자연의 전시전을 열고, 영국 요크쇼 조각공원(2010), 프랑스 샤토 쇼몽 쉬르 루아르(2013) 등 활발한 작품 개인전을 가진바 있다. 지난해 12월에서 1월까지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에서 작품 전시전을 열기도 했다. **☞**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열린 데이비드 내쉬(David Nash) 개인전 © KUKJE GALLERY



Two Cut Corner Columns(2011)



King and Queen(2011)



Torso\_2011